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오늘 개막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이하 '노란꽃잔치')가 13일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황룡강 일원에서 다채로운 가을꽃 향연을 시작한다.

13일 저녁 6시 장성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개막 행사는 인기 개그맨 출신 이승환 MC의 사회로 인기 가수 더원, 김수찬 풍덩이 등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로 이어진다.

14일에는 오전에는 꽃길 5km를 걷는 '황룡강 걷기대회'가 열린다. 인터넷을 통해 미리 참여 신청을 한 참가자들에게 장성 특산품인 삼채로 만든 간장, 오일, 피클 중 하나와 함께 도시와 이벤트 쿠폰이 증정된다.

황룡강은 13.5km에 이르는 한국에서 가장 긴 '꽃강'으로 이 일대 약 20만㎡(약 6만평) 규모의 꽃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황화 코스모스, 해바라기, 백일홍 등이 대규모로 꾸며져 걷기대회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감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황룡강 일원에는 테마별로 '장성 동화마을정원' '문화정원' '황룡정원' '황금미로정원' '포도정원' '쉽

공설운동장서 화려한 개막축하공연 열려

오는 29일까지 17일간 다채로운 가을꽃 향연



터정원' 6개의 정원이 만들어진다. 정원마다 동물체험, 도시, 푸드 체험, 주막, 휴식 컨셉 꾸며져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선사한다. 지난해 뜨거운 인기를 모은 전통염치를 탐승하면 정원 곳곳에 둘러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

꽃길을 걷다 보면 꽃으로 만든

'돈벼락 터널' '소원이 이루어지는 징검다리' 등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장소를 만날 수 있다. 꽃강의 특별한 매력을 더하는 야간 조명도 설치돼 밤에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1만원짜리 쿠폰을 구매하면 할인권 6매와 시식권 1매, 경품 응모권 1매를 주는 '웰컴 혜택

드림' 이벤트도 열린다.

할인권을 이용해 음식집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할인받을 수 있고, 빵·쿠키를 맛볼 수 있는 시식권도 사용할 수 있다. 쿠폰 구매자들에게는 경품 행사도 준비했다.

휴대폰에 '축제스탬프투어' 앱을 설치한 뒤 다섯 개 정원을 둘러보는 스탬프 투어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정원 다섯 곳을 방문해 QR코드로 사진을 찍으면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를 증정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난 추석연휴부터 많은 분들이 찾아와 많은 분들이 황금빛으로 물든 황룡강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계시다"며 "지난해보다 더 화려하고 알차게 만들어진 '노란꽃잔치'를 많은 분들이 오셔서 꽃강의 색다른 아름다움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꽃잔치는 오는 29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오는 27일부터 29일에는 백암산과 백암사 일원에서 애기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1회 백암 단풍 축제'가 개최된다.

장성=반정모 기자

신안군, '신규시책 보고회' 개최

군정운영 방향과 접목할 수 있는 사업 선정

신안군은 민선6기 군정비전 및 목표실현을 위해 10일 '2018년도 신규시책과 국고현안사업 전략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각 부서별로 제출된 86건의 신규시책과, 62건의 국고현안사업, 2건의 민자사업 등 총 150건에 대해 간부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앞으로 군정운영 방향과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은 특히 2018년도 새천년대교 개통에 따른 폭발적인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새로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신규시책 발굴과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안군은 이번에 대

거 발굴된 신규시책 추진과 국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길호 신안군수는 "이번에 발굴된 신규시책중 자체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보조사업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모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차질 없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관광객 성향이 변화하고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해 우리 모두 새로운 혁신과 창의적인 행정으로 시대의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안=박응식 기자



영광군, 추계 도로 일제정비 나서

기능 저하된 시설물 정비·제설자재 및 장비 점검

영광군은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군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제설자재 및 장비를 점검하는 등 추계 도로 일제정비에 나섰다.

관내 위암국도, 지방도, 군도 등 총 262km 중 도로정비가 필요한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10월 27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하게 되며, 도로 노면 포트홀 보수, 도로 시설물 청결 유지, 교량 등 시설물 기능유지, 안전시설 및 배수시설정비, 낙석 및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 도로표지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위암국도 2개노선 28km, 지방도 4개 노선 72km와 군도 23개 노선 164km)

아울러, 깨끗한 도로정비를 위해

구입한 노면청소차(16톤)를 이용하여 도로노면 토사 제거에 활용하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도와 지방도 등 타 기관 관리도로에 대해서도 각 도로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우리 지역을 찾는 모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도로이용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대민행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2016년 전라남도 도로정비 최우수기관 선정 지자체로서 금년에도 우수 지자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계도로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보성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본격 가동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총력

보성군은 구제역 및 AI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보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청 농축산과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총괄반, 홍보반, 예찰반, 방역지원반, 연락반 등 총 5개반, 19명으로 편성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은 질병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한 살처분 현장 지원을 위한 AI 가동방역대 4개반 26명을 사전 구성했으며, 이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 교육 및 살처분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9월말 실시했다.

또한, 지난 9월 한달 간 소 2만여두, 돼지 2만1천여두, 염소 6천여두 등 우제류 5만여두에 대해 공수의를 동원하여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했다.

추후 항체양성을 검사 결과 기

준지 미민인 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구제역 발생 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최근 경북 영천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H7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관내 철새도래지 1개소에 대해 축협 공동방제단 및 군 방역차량을 동원하여 매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개 입간판 및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및 인군 농가 방역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가금류에 대해서는 오리 입식 사전승인제 운영, 일제 입식·출하 시스템(5일 이내 일제 입식·출하, 휴지기 2주 이상) 적용, 사전 폐사체 검사 및 출하전 검사 후 이동승인서 발급 등 엄격한 관리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구제역 및 AI 청정지역 보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군, 도시민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행사 인기

서울·경기·대전 등 도시민 30여 명 초청



고흥군은 이달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경기·대전 등 도시민 30여 명을 초청하여, 고흥군을 알리고 소개하는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행사를

실시한다.

매년 3회 100명 이상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초청하여 고흥군을 소개하고 직접적인 농업 체험의 기회를 줌으로써 귀농·귀촌 결정을 높이고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귀농하여 유자·석류 등의 소득 작물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견학 및 체험을 통해 농업을 이해하는 기회 제공과 소록도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 탐방 등으로 고흥

을 알리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고흥군(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금년 7월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고흥군으로 귀농한 인구는 180가구(300여 명)로 전년 최대인 것처럼 알려져 귀농·귀촌의 적격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도시민이 귀농·귀촌 의향 단계에서 이주까지 안정적인 고흥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피겨스케이팅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ongyang 2018
Pyongyang 2018